



‘공주시 복음화대성회’ 성령충만·말씀충만

공주시기독교연합회 주최... 조용목 목사, 임종달 목사 은혜와 권능의 말씀 선포



강사
조용목 목사



강사
임종달 목사

공주시기독교연합회 주최 공주시복음화대성회가 지난 4월 23일(주일) 저녁부터 26일(수)까지 공주 꿈의교회에서 열려 공주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은혜로운시간을 가졌다.
이번 성회에는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와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를 강사로 하여 나흘간 은혜

와 치유,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말씀과 기도로 살핀 쉼과 만나를 먹는 성도들은 환란스러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조용목 목사는 지난 4월 24일(월)과 25일(화) 오전·오후 공주꿈의교회에서 열린 ‘공주시기독교연합회 주최 공주시 복음화대성회’에서 은혜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했다.
매 집회에 공주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조철호 목사) 임원 목사들이 사회와 대표기도 등 주요 순서를 담당하고 성경교단, 침례교단, 감리교단, 장로교단 등 각 교단별 연합찬양대와 중창단이 찬양 순서를 맡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 또한 교단별로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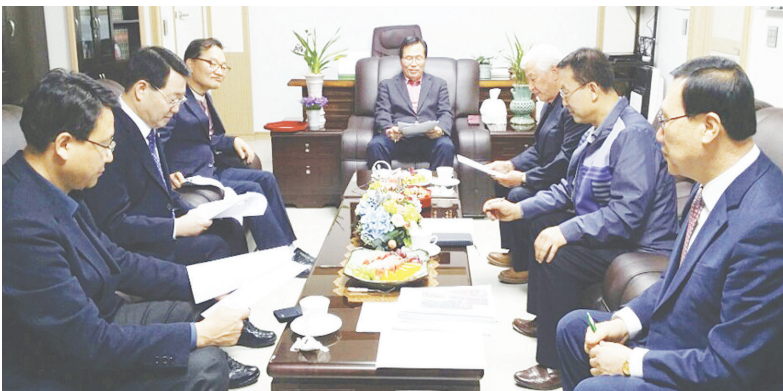
사위원들이 조직되어 안내와 헌금 등 이번 성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헌신하였다.
조용목 목사는 설교에서 구원의 진리와 중대한 복음전파의 사명 및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시대적인 책임과 사명을 역설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공주시 복음화를 축원하였다.
이번 공주시 복음화대성회는 “하나님께 나아오라!”(시 55:7)라는 주제로 4월 23일(주일)부터 26일(수)까지 4일간 계속됐으며, 23일(주일)과 26일(수) 오전, 저녁집회에서는 임종달 목사가 구원과 생명의 메시지, 성령충만의 역사를 강조하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제66차 정기총회 준비에 만전

제65차 총회 12회 임원회

교단 제65차 총회 12회 임원회가 지난 4월 24일(월) 오전 11시 기쁨순복음교회(담임 조남영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환란스러운 국가정세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정기총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과정을 점검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최창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김갑신 목사의 기도,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설교와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 회기동안 헌신한 임원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총회장 조남영 목사 주재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홍 현철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총무보고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및 각종 업무사항을 보고하고 재무 조원재 목사의 수입보고,



교단발전기금 남일현황 회계 안재홍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토의 및 안건 결의사항으로 교회기금 청원 교역자 기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 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교회명칭변경보고 등의

내용이 처리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 66차 정기총회의 세부일정을 점검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교사감습회, 해외선교사 목사인수, 중국정기 지방회 협력 건 등 각종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모든 대상을 어떠한 눈으로 볼 것인가?’



조용목 목사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눅 11:34)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마음가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눈의 모양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사물을 어떠한 눈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의 차이는 삶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되며, 행복과 불행에 관계됩니다.

첫째로,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쉬기를 원하셔서 베를 타고 베세다 광야로 가셨다가 그곳에 먼저 와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 중에 병든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셔서 모두를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눈, 이기적인 눈으로 보면 질책부터 하게 됩니다. 마치 화가하고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트린 맏아들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의 눈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았으므로 화가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그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체질이 우리에게 사랑의 눈을 가지게 하여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성급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율법적이고 이기적인 눈으로 사물을 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와 서신에 유달리 사랑이란 용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결과입니다.

둘째로, 공의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이란 원죄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는 방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균등하여 치우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인생들을 보시고 그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으나, 또 한편 공의의 눈으로 인생들을 보시고 꾸짖고 노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히 대하시고 하위와 가식으로 행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준엄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우리는 편견과 이기심에 의해서 판단을 굽게 하거나 인간의 욕망과 사욕에 치우쳐 악하고 불의한 것을 묵묵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면전의 직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판단의 원칙으로 삼게 될 때 공의의 눈, 공의로운 안목, 공의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편에서 심니다.

셋째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법을 교육하셨습니다. 그에게 변절한 지손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후 어느 날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 내시고 하늘의 별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 정탐꾼 가운데 열 명의 정탐꾼은 과학적인 눈만 가졌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과학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탄 가운데 있는 복을 보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영광을 보게 되며, 문제 안에 있는 해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탄 중에도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눈, 공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관점의 차이는 구원과 멸망, 영생과 영멸,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에 관련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포토뉴스



교단 감사위원회(위원장 김병목 목사)는 지난 5월 4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지난 회기 총회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새 회기년도를 준비했다. 제반사항과 각종 서류들이 규정에 의해 잘 갖춰지고 교단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단 예산위원회(위원장 윤병하 목사)는 지난 5월 4일(목) 오후 2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새 회기년도 예산심의를 갖고 규모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 상세하게 점검했다. 특히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세웠다.

원로목회자 복지증진 위한 좌담회

한국교회가 앞장서 교회복지 마련돼야 해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이하 한기원목)은 지난 4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목자기배에서 원로목회자 복지증진을 위한 좌담회를 갖고 원로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로목회자의 복음에 대한 현실과 실제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는 ‘원로목회자의 소명과 각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피 목사는 “원로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소명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다시 강단으로 올라가는 것, 물고기 배속에서 다시 나온 요나처럼 사명을 찾아가는 것,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성공주의나 소비주의가 아닌 거룩함에 맞춰 영성의 목회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세광 목사(한기원목 대표회장)는 ‘노인복지와 원로목회자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은퇴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결연을 시



도하여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보살피는 교회복지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근모 장로(한국교회평신도총연합회 총재)는 ‘한국교회가 바라보는 원로목회자에 대한 복지’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60~80년대 한국교회의 성장은 원로목회자들의 땀과 눈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런 만큼 한국교회는 원로목회자들에게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로는 또 “교회에서 원로목회자에 대

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교회복지도 나아갈 수 없다”며, “한국교회가 원로목회자에 대한 복지를 마련하는 것은 기독교복지의 커다란 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수 목사(한기원목 총재)는 ‘원로목회자를 위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지역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많은 은퇴목회자들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역공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원로목회자 회관 건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신학위 제7회 신학세미나

지왕철 · 장한국 · 임준제 · 정명구 목사 강의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신학위원회(위원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4월 13일(목) 오전 11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4층 제1연수실에서 제7회 신학세미나를 개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동역자들이 될 것을 굳게 다짐했다.

한홍교 목사는 세미나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영적 충전을 받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1강의는 지왕철 목사(한기보협 대표회장)가 ‘성경원형본질회복’으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지왕철 목사는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그릇의 용도는 도구가 아닌 담는 것이다. 그릇의 용도는 그릇을 구입한 사람에 따라 사용 용도가 달라진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 거룩한 그릇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자”고 말했다.

2강의는 장한국 목사(예장진리총회 총회장)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주제로, 3강의는 임준제 목사(예장개혁동총회 총회장)가 ‘새천년 미래신학, 기독교영성’을 주제로, 4강의는 정명구 목사(오순절성회 총회장)가 ‘교회사명-숙전’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한편 한기보협 신학위원회는 한국교회의 변화와 발전, 성경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매년 정기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인권-평등’ 미명 하에 동성애 합법화 시도는 문제

‘성 혁명과 네오막시즘’ 특강 - 박서영 법무사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도서출판 하아-북)’의 저자 박서영 법무사는 지난 4월 22일(토)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황원찬 박사)에서 열린 부활절 감사예배에 강사로 초빙되어 “대한민국을 강타한 성(性) 혁명과 네오막시즘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박서영 법무사는 “동성애 문제는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다. 그러나 실제로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동성애 자체만이 아니다.”면서, “그 배후 세력이 동성애를 통해 확립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질서다.”라고 지적했다.

박 법무사는 또 “현대 사회의 가치 지위를 ‘인권’과 ‘평등’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자유주의 사상은 시대사조인 포스트모더니즘에 편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

재로 서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과 ‘평등’ 개념을 재정의한다고 덧붙였다.

박 법무사는 특히 “유물론과 무신론을 주장하는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틀을 인간 억압과 불평등의 근원으로 간주하면서 창조질서와 틀을 깨뜨리는 것이 진보이며 ‘인권’과 ‘평등’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법무사는 “이들 자유주의 사상과 막시즘, 네오막시즘은 기존에 형성되었던 인권과 평등개념을 왜곡된 인권과 평등개념으로 대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다”면서 “동성애 합법화도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수단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교연 여성위, ‘꿈나무’ 사랑... 미혼모자 위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정착금·아기용품 등 전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여성위원회(위원장 권복주 장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8일(월) 오전 11시 서울 상도동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신하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꿈나무(위원장 박미자 권사)를 방문, 자립정착금 100만 원과 아기용품(기저귀 물티슈)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다.

또한 한국여장로회연합회 회장 홍기숙 장로와 임원들도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해 자립정착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한교연 여성위원장 권복주 장로와 총무 이경희 장로, 회계 김순희 장로, 위임 김순미 장로와 홍기숙 장로(한국여장로회연합회 회장)와 임원, 한교연 사무처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물품 전달식은 이경희 장로의 사회로 홍기숙 장로의 기도, 최귀수 목사(사

무총장 대행)의 ‘빛’(마 4:15-16)이란 제하의 설교, 여성위원장 권복주 장로의 격려사에 이어 꿈나무 박미자 원장이 인사한 후 최귀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여성위원장 권복주 장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꿈나무에 있는 어린 생명과 엄마들을 돕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상에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미약하나마 실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미혼모자가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립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꿈나무 박미자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복지법인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인 꿈나무에 도움을 손길을 전한 한교연 여성위원회와 한국여장로회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미혼 엄마와 아이들이 정자사회로 한발 더 다가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예장연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특별세미나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지난 5월 2일(화) 동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처방한다’라는 주제로 5월 12일(금)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회사 입장’에서 정성구 박사가 기독교회의 역사를 조망하고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로 잡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고 “한국교회에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들의 이

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또 최하림 박사가 오늘날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처방을, ‘성경에서 본 한국교회 입장’에서 박형용 박사가 한국교회 밑줄 변질 원인과 결과를, ‘한국교회 이단논쟁 입장’에서는 강준오 목사가 한국교회의 교권적 형태와 이단 문제에 대해 발제한다.

예장연은 오전 10시 30분 예배를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이어지는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에 총체적 난국에서 방향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고 있다.

혼란한 정국... 나라의 안정을 위한 특별기도회

(사)한기지협,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소망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지난 4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 여전도회관 그릴에서 나라의 안정과 대통령선거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한기지협은 이날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선언문도 발표,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독교의赫赫한 공

헌의 역사적인 사실을 교과서에 전하기 위하여 지 않은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새 정권에서는 역사바로세우기 측면에서 역사 교과서에 바르게 기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신목 대표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는 김동권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의 기도, 장훈길 장로(한기지협 회계)의 성경봉독, 유경선 장로(한기지협 감사)의 특송, 성경경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성경경 목사는 행 3:21-23, 삼상 16:7~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고, “급년 대선에는 다윗과 같이 양떼를 기르며 가는 지도자, 국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선택되어야 한다”고 간구했다.

이날 기도회는 또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김해철 목사(루터대 전 총장)가 ‘분열된 국론이 하나되어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원종문 목사(한기지협 상임회장)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올바른 대통령 선출을 위하여’, 김재승 목사(예성 증경총회장)가 ‘북한의 핵도발 저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조석규 목사(한기지협 상임부회장)가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보복 중단을 위하여’ 기도를 인도했다.

기도회는 이어 홍성익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의 격려사, 한정영 목사(한기지협 상임이사)의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애국가 제창 등의 순서로 마쳤다.



송파지역 부활절 새벽 연합 찬양예배

송파구 기독교연합회 소속교회 2천 명 성도 참석

송파구 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유병용 목사)는 지난 4월 16일(주일) 새벽 5시 30분 가든파인브 중앙광장에서 약 2천 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부활절새벽연합찬양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준비위원장 유병용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유병용 목사의 개회선언, 고분 지광온 목사의 기도, 임미주원찬양단의 찬양, 부회계 오병은 목사의 성경봉독, 직전회장 이강평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강평 목사는 고전 15:50-5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승리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다시 오



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신앙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복을 누리자”고 전했다.

이어 고분 백광진 목사·고분 박원호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북한동포·세계복

음화와 평화를 위해’, ‘70만 송파구민의 복음화와 송파구 발전을 위해’ 특별기도 후 김정국 목사의 장하급 전달, 총무 김현수 목사의 광고, 고분 노원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15회 예장호헌총신 신학포럼 열려

이의근 박사·송춘길 박사 특강인도

예장(호헌)총회(총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4월 17일(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잘 배워 잘 가르치자’라는 주제로 제15회 호헌신학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앞서드린 개회예배는 실무회장 이

형규 목사의 사회로 준비위원장 이순제 목사의 기도, 서기 최선희 목사의 성경봉독 도강을 목사의 특별찬양, 상임회장 조조복 목사의 설교, 총무 김남욱 목사의 봉헌기도에 이어 예장예측총회장 박영민 목사의 축사, 총회장 한홍

교 목사의 격려사 사무총장 오동환 목사의 광고, 조조복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학포럼에는 제1강으로 이의근 박사(한기보협 공동회장)가 ‘이 땅 기독교인의 현주소’란 주제로 제2강에는 송춘길 박사(WCC, WEA 반대연대위원장)가 ‘현대 기독교의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인도했다.

제15회 신학포럼 폐회예배는 공동회장 차재준 목사의 설교, 총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말씀과 축도로 마쳤다.

예장호헌총회 신하 호헌총회신학은 1962년 개원해 56년간 신학부 제2회 대학원 제32회 졸업생을 배출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호헌총신 신학포럼은 매년 1회씩 개최하여 금년으로 1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 위한 의료봉사

아주대병원 의료진과 외국인선교회 회원들 헌신

외국인 성도 및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선교회의 4월 의료봉사활동이 지난 4월 16일(주일) 은혜와진리교회 수원성전 세계선교센터에서 있었다.



선교센터내 진료실과 치과진료소에서 실시된 의료봉사에 많은 외국인 성도와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들이 찾아와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의료 봉사자들로부터 정성 어린 검진과 치료를 받았다. 미세면지의 영향으로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특히 많았고, 육체노동을 하는 다수의 외국인 성도들도 재활의학과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의료 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교회 회원들은 병원을 찾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안내하고 이들 외국인들과 의료진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며 진료 편의를 도왔다. 5월 의료봉사는 오는 5월 21일(주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야유회 통해 지방회 단합 다짐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조병희 목사)는 지난 4월 27일(목) 좌천 장안사계곡에서 야유회를 갖고 지방회원들의 진정한연합과 헌신을 다짐했다.

신행 후에는 계곡 입구에서 메가메운탕으로 식사를 하고 인랑 바닷가 찻집으로 장소를 옮겨 볼 바다의 정취를 만끽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사드리고 지방회의 단합을 다졌다. 또한 5월 교단 총회 참석을 의논하고 해운대에서 온천을 한 후 저녁식사까지 함께하며 목회현장에서 쌓인 피로를 풀고 앞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목회를 다짐하며 은혜기운에 야유회를 마쳤다.



송천교회 담임목사 취임 장로장립예배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유석구 목사) 송천교회(담임 윤장현 목사) 원로목사추대 및 담임목사취임예배가 지난 4월 30일(주일) 오후 3시 동교회 대성전에서 드려져 송천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것과 더욱 열심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재부 김경순 목사(순복음회복교회)의 찬양인도와 총무 이봉기 목사(보리울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장

유석구 목사(순복음에바다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신근철 목사(순복음예수생명교회)의 성경봉독,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눅 23:39-43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바른 신앙의 자세는 자신의 뒤를 돌아보아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세를 갖추고 세상을 마음에 두기보다 천국을 마음에 두는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며, 십자가의 참담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세를 가질 것'

을 임직자들과 성도들에게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2부 순서로 지방회장 유석구 목사의 진행으로 정형훈 담임목사 취임 서약 및 교우들의 서약과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공포 및 폐가 증명되었으며, 3부 순서로 송천교회 당회장 윤장현 목사의 진행으로 장로장립 및 집사안수와 권사안수가 진행되었다. (송천교회 임직자 - 장로 안장면, 안수 집사 송승현 권사 이명란, 김효숙, 김정자, 최정원, 유명순, 엄명춘, 명예인수집사 김용안, 명예권사 전순점 이상 10명)

4부로 송천교회 담임 정형훈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지방회 증경회장 임훈택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권면과 부회장 한상용 목사(순복음성령교회)의 축사, 회계 김순형 목사(이침빛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증경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와진리교회)의 축도로 담임목사 취임 및 장로장립예배를 은혜롭게 마쳤다. 예배 후 송천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애찬과 교제모든 행사를 마쳤다.



“인도 선교지 벵갈로에서 온 편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회장 조옥목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인도 벵갈로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 17일(월) 이곳 은혜와진리교회의 SG나갈 성전과 물마갈 성전에서 두 차례 '인도 은혜와진리신학교(Grace & Truth Biblical Seminary, India)'의 2017년도 졸업예배를 드렸습니다. 24명의 졸업생과 수료생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복음지역으로서 교회 부흥과 인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첨부한 사진들은 물마갈 성전에서 열린 졸업식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한국 은혜와진리교회의 지원에 힘입어 말씀과 성령충만한 주님의 일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인도 은혜와진리교회와 신학교를 위해 변함없이 기도하고성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도에서 앤 데이비드 선교사 (Rev. N. David) 드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선교하자!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는 지난 4월 18일(화) 오전 11시,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샘빛교회(담임 이성석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복음전파와 지방회 발전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신홍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권점식 목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직전부회장 이동백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마 4:12-16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이방선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회장 이성석 목사의 합심기도, 재무 윤득주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최은운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



쳤다. 2부 지방회의에서는 회원호명 후 교단·지방회 보고와 광고 등 각종 회부를 처리하고, 지방회 교회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 서로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땅에 헌신한 선교사들의 발자취 따라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탁정진 목사)는 지난 5월 1일(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역 일대에서 야유회를 갖고 이 땅에 헌신한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 묘역은 서울 도심 중심부인 합정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외국인 선교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다.

묘역 방문 후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한강 유람선 관광을 하며 지방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지방회 발전과 복음전파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Wedding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한국교회언론회

주님의 교회와 조국을 위하여 ①

롬 1:24-27, 레 18:22-30

1. 서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조국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민족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지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침략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민족에게 주신 자력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수천 년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보내주시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전래는 세계 선교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복음전파 130년에 국민 20%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 파송 3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적위치에서 훌륭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며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래 되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무능한 군주와 부패한 관료들로 인하여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무지와 신분차별, 관리들의 횡포로 인하여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국제정세는 서구열강의 서세동진(西勢東進)의 침략야욕과 일본제국의 침탈에 속수무책으로 나라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불행한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복음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나라의 정신과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조국 사랑의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교회는 민족의 슬픔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조국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3·1 독립운동은 기독교 없는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국가인구에 2%도 채 안되었던 때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시 우리 나라 만세'의 애국가를 지어 조국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리 높여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희

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민음의 선각자들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동방의 위대한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축복의 나라인 것을 확신했으며, 그 믿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시련은 있었으나 이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애국자들은 교회가 기독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교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3대 천재라고 불렸던 초기의 춘원 이광수가 '우리 조선은 기독교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한 말은 교회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이 어떠한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일제의 식민지 암체 36년 만에 해방되었으나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겪고서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헌 국회는 이윤영 의원, 즉,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결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민족상잔의 비극 6·25를 겪었습니다. 김일성 공산주의 침략에 의한 그 처참한 피해의 첫

수박에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2. 본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우리의 조국과 우리 사회를 향한 도전이라는 것은, 평화의 종교를 기장한 이슬람의 침략과 동성애의 도전입니다. 특별히 젠더 이데올로기로 세상의 기존의 가치, 인류가 지켜 온 인간다운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이 같은 위험이 가까이, 그리고 두렵게 다가오는 것을 깨어있는 파수꾼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나 2:1) "파괴하는 자가너를 치러 올라왔으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이다"

이 같은 위험한 현실에서 우리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질서요 명령입니다. 인생들은 이렇게 행함으로 참된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1 그런데 동성애란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가, 혹은 여자와 여자와 혼인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혼인관계가 아니라도 동성 간에 성적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을 동성애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오늘 병독한 로마서에 말씀처럼 부끄러운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롬 1: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이들은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주장을 펴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소위 '68혁명'이 원인입니다. 68혁명은 네오마키즘입니다. 정통 막스주의의 실패를 새로운 방법론으로 한 도전으로, 문화혁명으로 표방하고 나섰으나 '반문화혁명'입니다. 기존의 모든 권위와 근대적 위계질서에 대한 저항과 이념의 투쟁입니다. 남/녀, 제국주의/식민지, 지배/종속, 자본가/노동자 등의 근대적인 대립적 구도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로 형성된 가정, 그리고 침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모두 정치적 관점에서 이념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가부장 제도와 남녀 중심의 일부일체제의 가족 등의 질서를 파괴하고 해체해야 진정한 해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성별의 개념,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질서, 기존의 금기시 하는 모든 것을 깨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68혁명으로 성(性)과 폭력이 일반화되었으며, 마약과 환각제가 공공연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통적 문화와 공리주의적 가치관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8혁명 시대는 성의 자유와 함께 이를 공개적인 담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기존세대의 가치관을 모두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목표를 위한 투쟁은 근대와 근대적 권위를 상징하는 스승 대학, 정부도 저항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치적 투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을정치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반세기 전에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68혁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사회를 일대 혼란으로 몰아가는 일에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성을 정당 정책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반성경적이고 결코 권정해서는 안 되는 성윤리를 고무시키고 권정하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지난 20세기 동안 인류역사를 이끌어 온 성경적 세계관이 1968년도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68혁명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적인 인간,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짐승적인 본능에 길들여져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동 정

루터회, 종교개혁 기념대회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총회장 김철환 목사)가 오는 10월 28~29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루터회는 지난 4월 28일(금) 아침, 서울 밀레니엄 힐튼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을 초청해 '교회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출범 예배'를 드렸다.

백석대학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4월 13일(목) 오전 11시, 서울 방배동 소재 백석대학교에서 제40대 총동문회장 최현기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동문 부회장 이정기 목사의 사회 가운데 김정팔 목사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낭독, 백석대학교 총장 최갑춘 박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한장총, 탈북민 대안학교 방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순미 장로)는 지난 5월 4일(목) 탈북민 편부모 자녀를 위

한 대안학교인 서울 구로구 금강학교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채영남 목사는 "금강학교의 학생들은 하나님께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며 격려했다.

나사렛대, 'Able+ Center' 개소



나사렛대(총장 임승안)가 장애학생의 자립생활과 직업능력, 자조능력 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나사렛대는 지난 4월 26일(목) 오전 11시, 교내에서 'Able+ Center(에이블 플러스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에서는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해 스포츠 활동, 기초직업교육, 문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회성 훈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 www.agtc.or.kr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 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기독교문화예술
진단

이성열 목사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이사, 전 서울예술신학교 학장, 전 바기오예술신학대학교 총장

기독교 예술, 그 지표에 대하여 ⑨



신약이 세인들이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예수께서 살아 있었을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나 행한을 그들 제자들이 그대로 옮겨거나 실행함으로써 신약이 잡이라는 것을 세인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었다는 데 있다고 본다. 만약에 신약이 예수에 의해 기록되어졌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의 주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며, 또 그러한 표현이 참인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세인들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표현이 그들 제자들에 의해서 인용되어지고, 나아가서 표현되어졌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여백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여백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오랫동안 서구사회는 기독교가 그 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기독교적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사정이 다르다. 다양한 문화가 서로 혼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절대적 삶의 문화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한때 목사가 될까도 생각해 보았다는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 신자가 아닌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상의 좋은 면이나 나쁜 면이나, 그 아름다움이나 흠을 보아야 하며,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견디지 말아야 한다. 지성으로써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며, 거기서 일어나는 공포에 의해서 비굴하게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 신이라는 개념은 모두 고대 동양의 전제주의에서 나온 개념인 것이다.

그것은 자유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념인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가엾은 죄인이나 뭐니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은 경멸해야 할 것으로 자존심 있는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일어서서 솔직하게 이 세상과 대면해

야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최대로 선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창조할 수 있는 미래는 이미 죽은 과거보다 훨씬 나은 것이 될 것이다.」

이같이 우리들 주변에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삶을 배타하기만 하는데 이는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이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우리들 삶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본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까지의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히기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안목은 제2의 바울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세기총, 통일기도운동 위한 자료집

국·내외 4,000교회 설교자료 2집 발표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있는 삼일절예 예배 및 기도회를 통해, ‘국·내외 4,000교회가 복음의 뜻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분단 된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통일기도와 교회연합을 이루는 기도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에 세기총은 기도운동 설교문을 발표했다.

이번 설교문은 박위근 목사(영천교회 원로목사)가 맡았다. 박 목사는 ‘내 손에 하나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8장 15절~23절의 말씀을 전했다.

그는 설교문을 통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설교문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회복을 말씀을 하셨다.”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종 에스겔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다.”면서 “우리는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쓴 막대기와 유다라고 쓴 막대기를 하나로 묶으라고 했을 때 하나가 되었다.”며 “오늘이

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남북은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전했다.

이윽고 “이 땅에, 한국교회 1천만 성도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흘러 적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며 “조국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란다.”고 했다.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는 동일한 설교와 기도를 위해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www.kccwkr)와 인터넷 신문 교회정론(www.car-a.ligo.com)의 사이트를 통해 ‘통일기도회’ 창에서 누구나 필요한 예배순서와 설교문을 다룬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포커스 / 성경적 경제부흥 2

성경적 경제부흥이란?

성경적 경제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사람을 통해서 경작하여 재생산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 땅에 충만케 하여 내 인생을 풍년들게 하고 그것을 나와 이웃과 후손의 후손에 이르도록 장구한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한 생활적인 것들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믿음이나 구원에 관한 신앙의 범주를 말씀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제에 관한 생활의 범주를 함께 말씀하고 있다. 즉 교회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생명공동체라면, 일터는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생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과 생활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것이다.

성경적 경제부흥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서 기록된 약속의 말씀과 법칙들을 100% 신뢰하고 삶 속에 적용시킬 때 말씀이 현실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이로써 나의 경제적 문제가 풀리고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회복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신을 겸하여주지 아니 하시느니라”(잠 10:22) 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다. “기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히 6:14)

성경적 경제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뿐만이 아니라 가난과 저주를 청산해 주신 사실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합법적으로 받아 누리게 하신 것이다. 기독교의 축복 신앙은 하나님의 계약과 약속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원의 계약 속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개인의 순종과 믿음으로 필리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후 8:9)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에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다고 증언했다.

성경적 경제부흥이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땅사에 형성되는 물질의 복을 말하고 있으며, 내세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복도 약속하고 있다. 즉, 구원의 개념에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복을 받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조건적이고 요령적인 사며니즘의 기복신앙과 기독교의 축복신앙이 다른 점 중의 하나인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요 1:12),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2:9)이다. 따라서 성도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고 이웃을 위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빈곤과 빛의 수렁에서 허덕이며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복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회자의 80%가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과 한국교회의 70% 이상이 경제적 지립을 하지 못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성경적 경제부흥은 성경에 기록된 2359구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자녀가 받는 권리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특권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경제부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강단이 풍성해지고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 지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전 10:19)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가난한 자가 부요케 되는 축복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영적인 영혼구원의 은혜일뿐 아니라 육적생명을 위한 물질의 축복까지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풍년들이 부자 되는 이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가난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최창식 목사(순복음복원교회)

제24회 예성 사모수련회 열려

특강과 더불어 사모회 정기총회도 가져

제24회 예성 사모수련회'가 지난 4월 17일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개최됐다. '부으소서! 다시금 세워주소서!' (골 3:10)라는 주제로 열린 수련회는 권명희 사모(사모회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허윤자 사모(사모찬양단 단장)가 기도를 했으며, 이동석 목사(총회장)의 '잇을 수 없는 사람들' (골 16:1~4)이라는 제목의 설교, 이강춘 목사(교단총무)의 격려사, 김종현 목사(성결신학원 이사장)의 축사, 고용복 목사(지도교분)의 축도로 첫날 예배를 마쳤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매일 새벽예배를 시작으로 세 번

의 특강과 심령부흥성회, 대전CBS에서 제작한 '순종' 영화관람, 마지막 날 사모회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새벽예배는 김영일(생명수교회), 유완용(광명교회), 박광일(신광교회) 목사가 설교를 맡게 되며, 특강은 허기선 사모(사모다움 대표)의 '행복한 사모입니다' 박성덕 교수(연리지가족부연구소 대표)의 '당신! 힘들었겠다' 서은영 교수(서울대 간호대학)의 '암 예방과 건강관리'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또한 3일 동안 저녁에 시작되는 심령부흥성회에는 김상현 목사(인천 부광김리교회)가 강사로 나섰다.

http://agpgs.aogk.org

2017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⑤ 반영합판 사진 2매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① 전형료 : 50,000원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④ 전수선 서류에 허위나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모회 제7회 정기총회

| 일시 | 2017년 5월 1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아가페성전

(11시부터 등록 12시 점심식사
1시 정기총회)

| 참석대상 |

사모회 임원 및 각지방회장사모
전국사모회 회원



고문 최혜선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은혜와진리교회



중경회장 김양란
안디옥교회



중경회장 차경애
진주은평교회



중경회장 김영숙
경남지방회



직전회장 신동신
청신교회



회장 차추련
안동성곡교회



1부회장 한정은
가평순복음교회



2부회장 김봉선
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



3부회장 이은숙
정읍순복음중앙교회



총무 박경미
순복음승리교회



협동총무 김숙향
안성평강교회



서기 오숙희
밝은빛교회



부서기 신영희
부강순복음교회



회계 조정에
순복음약속교회



부회계 김귀자
세종순복음교회



재무 김귀순
아세아순복음교회



감사 박정선
고흥송곡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차추련 · 총무 박경미 (010-2167-7422)



요양보호사

수강생 수시모집

취업전망

- 방문요양, 방문목욕
- 주·야간 보호센터
- 복지관 의무채용
- 5년 근무 후 노인복지시설운영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를 맞아 미래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영광

내 사랑 직업 소개소
재가복지센터
장례문화신문

상담문의 1522-0702

장례지도사 교육생모집

나의 장례는 내가 설계는 한다!!
장례토탈종합상담
무시험 자격취득!

장례 유망 고소득 개인 사업 및 취업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10%는 장례지도사로서 입관과 연습 등을 담당하고, 90%는 장례설계사로 취업하여 장례행정실 행정 및 업무, 장례상담, 장례계획, 상조 업무 등에 종사합니다.

장례지도사란?

상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전문직으로 장례상담, 시설관리, 의례지도빈소설치, 상조업무를 총괄하는자로 유망전문직업입니다.

- | 창업 | 장례식장, 장례의전업체, 매장 매장 용역업체, 장례용품판매업체, 화환용품 판매업체 등
- | 취업 | 장례식장 장례서비스, 봉안당 및 화장시설 장례서비스, 장례의전업체, 상조업체 등

반려동물 관리사

반려동물 천만시대!! 그들을 내아이 또는 가족이라 부른다.

특 전

- 1. 교육 수료 후 100% 국가자격취득!!
- 2. 수료자 협약기관 및 장례식장 추천!!
-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 교육시간 | 300시간(이론150 + 실기100 + 현장실습50)
- | 교육내용 | 장례상담, 장사시설관리, 위생관리, 공중보건 연습 및 장법실습, 장례학개론, 장사법규

장례지도사교육원 | 요양보호사교육원 | 내사랑직업소개소 | 장례문화신문

(주)영광 상담문의 1522-0702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내역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는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45인승 버스



▲최고급 리무진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걷기동우회-소록도 탐방

소록도 일대를 걸으며 사랑의 교제 나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 감당

스포츠선교위원회 걷기동우회 4월 모임

교단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김순구 목사) 산하 걷기동우회(회장 홍현철 목사) 회원들은 지난 4월 6일(목) 낮 12시 전남 여수 순복음선교중앙교회(담임 김명자 목사)에서 4월 모임을 갖고 심신을 단련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했다.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회장 홍현철 목사의 사회로 최남성 목사의 기도, 정영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

다. 정 목사는 요 21:1-17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DNA'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단과 하와의 DNA를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꾸어야 한다"고 전하고 이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조정화 목사의 한글기도 후 이어 특별기도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석현 목사가, '교단발전과 부흥

을 위해' 황용연 목사가, '종북세력 척결과 나라 바로 세우기 위해' 최형택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으며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행사로 순복음선교중앙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한 뒤 소록도를 탐방하고 소록도 일대를 회원들과 함께 걸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으며 오는 9월 10일 전남 북동에서의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세미나

주 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처방한다.)

일 시 2017년 5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

장 소 여전도회관 2층 (루이시기념관: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190 TEL. 02-708-3131)

■ 협 찬 : CTS기독교TV · 복음신문 · 교회연합신문 · 목양신문 · 기독교중앙신문 · 크리스찬연합신문

설 교	강 사	강 사	강 사	강 사	축 사	축 사	축 도
에 영 수 박사 국교회신학교연합회 대표회장	정 성 구 박사 전 총신대학교 총장	최 희 범 박사 전 총신대학교 총장	박 형 용 박사 전 합신대학교 총장	강 준 오 박사 교회연합신문 대표	양 정 철 회장 CTS기독교TV 회장	양 정 섭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장	김 광 본 목사 (사)예장연 고문
대 회 장	준비위원장	준비위원장	준비위원장	준비위원장	준비위원장	준비위원장	준비위원장
이 광 용 목사 (사)예장연 대표회장	이 성 현 목사 (사)예장연 상임회장	이 강 익 목사 (사)예장연 상임회장	김 승 자 목사 (사)예장연 상임회장	장 승 우 목사 (사)예장연 상임회장	고 중 권 목사 (사)예장연 상임회장	박 동 호 목사 예장보수총회 총회장	

■ 집필 및 편집위원 ■

에 영 수 박사 국교회신학교연합회 대표회장	송 기 호 목사 예장연합신문총회 총회장	조 요 한 목사 예장보수총회총회 총회장	박 용 기 원장 로그스신학연구원 원장	우 찬 무 목사 예장총회 총회장	최 병 남 목사 예장총회 총회장	안 병 삼 목사 예장고교총회총회 총회장	최 선 군 목사 예장동맹총회(대림) 총회장
----------------------------	--------------------------	--------------------------	-------------------------	----------------------	----------------------	--------------------------	----------------------------

- 대 회 조 직 -

고 문
에영수 김원식 옥옥수 김기형 송 현
이광일 김광원 서재복 김태경

대 회 장 이광용

준비위원장

이성현 이광일 김승자 정승우

준비위원장 - 고종권 박동호

준비위원

김광호 차득남 박영성 송기호 손대영

정현철 최석수 임은선 오선미 황대영

손영란 이후현 박종선

지도위원

강태현 김국현 김기순 김남식 김능력 김덕미

김문진 김봉국 김은영 김용진 김용희 김용현

김치희 김태원 박정자 강계순 강경숙 강성모

계승창 박이해 박만식 박성일 박요한 박종훈

박해영 변영욱 백종훈 백만기 송영란 송호식

이규애 이경남 이무용 이신애 이성문 이성표

이성순 이원숙 이영욱 이윤숙 이창용 이후현

임은선 오연규 유관태 유연식 윤이래 안병삼

원종성 정종삼 정석희 정태익 조관순 조규애

조도형 조영훈 정영순 정순신 정효신 최종희

하석수 황경수

현동총무

김능력 김대길 김원수 김원주 김영은 김광균

김태곤 권오열 권종택 강경숙 박영성 박종기

서호준 신석만 성정숙 손정심 이사람 이준숙

이훈식 이훈우 이하나 이현학 인건일 임시라

임하표 안선영 윤보을 연규식 오수숙 오순환

원재태 전귀만 조문형 조애순 조완석 정태중

최수영 최명복 한성자 한성훈

총괄총무 - 고종권

서 기 - 손대영

회 계 - 오선미

감 사 - 정순희

※ 분과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 하태관

• 서기: 이종재 최요한 권태경 계승창 최현봉 황수용

예배분과 위원장: 고종권

• 서기: 손대영 김광태 황경수 육숙자 이상원 서상은

봉사분과 위원장: 이명순

• 서기: 이명순 김광태 김원수 김명복 박경자 박정원

홍보분과 위원장: 유연식

• 서기: 김기봉 김광태 안정순 박종남 박찬원 이창용

동원분과 위원장: 정현철

• 서기: 고광원 김남희 박종남 남상배 차승민 최현봉

사회분과 위원장: 이후현

• 서기: 오준호 계승창 김원수 김명복 박경자 박정원

여성분과 위원장: 임은선

• 서기: 하석수 김광태 정영순 문은숙 이윤숙 신숙자 조시라

재정분과 위원장: 오선미

• 서기: 김미리 이하나 이준자 오성숙 김재희 김치희

주관 :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1길 6, 2층 TEL. 02-706-2970~1 FAX. 02-706-2990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통일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EUN HEE JOO HOMME

명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나만의 옷을 입다

장인정신이 살아 숨 쉬는 30년 전통의 맞춤정장 '은희주옴드'

하나뿐인 맞춤을 원단선택부터 체촌 패턴 및 제작과정까지

'사장님과 직접' 상담 하세요!

영사 1 - 49 X 2 = 79 / 39 X 2 = 69

49만원 2벌을 79만원에, 39만원 2벌을 69만원에 맞춤영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원단부터 수입원단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원하시는 색상으로 은희주옴드 맞춤정장 제작과정과 전 과정을 동일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사 2 - 번신복(셔츠+바지) (아단참주)

구두(25만원) + 셔츠도세트(69만원) + 활영용 셔츠도대어 2벌 = 79만원

구두(25만원) + 셔츠도세트(69만원) + 활영용 셔츠도대어 2벌 = 89만원

Special Event

결혼식 날, 대여가 아닌 나만의 턱시도로 예약 우, 추가금액 없이 간단하고제로 일반정장으로 입으세요.

* 공단카라

* 선택라벨(카라)

* 어깨단수

* 소볼단수 (단수선택가능)

타사와 가성비 비교를 거부합니다.

오랜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질리티의 하이엔드수트를 선사합니다.

강남구 대치동 920-9번지 은희주옴드 H.P 010-5476-4667 TEL 2051-8996~7

‘제5차 ACTS 신학포럼’ 개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부설 신학연구소 주최

“제5차 ACTS 신학포럼”이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부설 신학연구소 주최로 “ACTS 신학공관과 역사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4월 24일(월)에 개최되었다.

이 ACTS 신학포럼은 “신학공관 운동”의 일환으로서 대학원 원우들을 대상으로 교수와 학생이 함께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 세미나인데 매 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열리며 올해로 벌써 5회째 열리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 신학 분과에서 연구 발표하였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으로 함께 하는 성공적인 대회였다.

ACTS가 펼치고 있는 “신학공관 운동”은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복음신앙을 통한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이라는 운동으로써 학제 간 통합 연구의 성격을 띤 뿐만 아니라 복음에 비평을 두는 학문연구를 촉진하는 큰 의미를 지니는 신학-신앙 운동이다.

제5차 ACTS 신학포럼은 제4대 연구소장 한성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표된 논문은 본교 역사신학 분과 박규수 교수의 “ACTS 신학공관과 교회사 연구 및 해석”과 본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조관수 목사의 “ACTS 신학공관과 루터의 인간론과의 연관성 고찰” 두 편이고, 이 두 편에 대한 논평을 같은 분과 원종전 교수가 했다.

박규수 교수는 ACTS 신학 공관의 기초가 되는 칼



빈의 구원론의 핵심이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오는 이중 은혜임을 강조하며 이것은 곧 정의와 평화의 동시성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상이 청교도들의 “가시적 교회(visible saints)” 개념으로 이어진 것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조관수 목사는 ACTS 신학공관이 루터의 인간론과 연속성이 있다는 논지를 가지고, 그 연관성을 루터의 노예의지론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인간의 전적타락에 근거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강조가 ACTS 신학공관에도 또한 강조되고 있음을 밝히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ACTS 신학공관 운동은 이러한 구원론에 대한 강조를 가지고 실제적인 기도운동을 통한 본교 신앙운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원종전 교수의 논평 후 대학원생들과 교수들의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이어 갔는데 특별히 참여자들의 질문 중 루터에게서도 발견되는 그리스도와 연합 사상에 대해 간략히 논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중생 개념과 칼빈에게 있어서의 중생 개념의 차이에 관하여 등 심도 있는 논의들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ACTS 아카데미 공동체 전체에게 의미심장했던 한 참여자로부터의 질문은 현재 ACTS 신앙운동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는 본교의 학문 연구가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신앙 운동을 통한 공동체의 영적 각성으로 이어가야 하는 당위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도전적인 질문으로서, 현재 교회 개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신학대학의 영적 부흥에 대한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포항제일교회, 생명나눔주일 예배로 1,047명 장기기증 서약

생명나눔을 약속하는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지난 4월 22일(주일), 전국의 교회에서 드려졌다. 서울과 경북 포항 등 총 8곳의 교회에서 2,097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헌신과 나눔의 의미를 성도들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 포항에 위치한 포항제일교회(담임 이상국 목사)는 부활절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22일을 생명나눔주일로 정하고 12.34부 예배시간에 온 성도와 함께 사랑의장기기증서약을 진행했다. 이목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을 통해 생명은 확장되고 지속될 수 있다”며 “인생 끝까지 나를 위해서만 내 몸을 사용하다가 나도 죽고, 내 몸을 필요로 하는 이도 죽게 만들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눠주고, 내어주어서 우리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살아가는 경험을 하자”고 설교했다. 이어 포항제일교회에서는 본부 대구경북지부장인 황찬구 목사를 초청해 서약식을 진행했다. 황 목사는 “우리가 한 평생 살면서 좋은 일을 하기 쉽지 않은데, 장기기증 서약은 내가 세상 떠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이름다운 일에 참여하는 약속”이라고 전하며 성도들에게 서약 동참을 독려했다. 그 결과 총 1,047명의 성도가 장기기증을 서약 참여했다. 앞서 포항제일교회는 1999년에도 서약예배를 진행했으며 당시 463명이 생명나눔에 동참하는 마음을 함께 했다.

생명나눔을 위한 교회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경기 일산에 위치한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도 사랑의

장기기증서약식이 진행됐다. 장성진 담임목사는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하자”며 성도들에게 서약을 독려했다. 그 결과 678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하며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이어 서울을 넘어 고양, 충남, 인천, 거제, 부산, 포항, 대구 지역에서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졌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생명나무교회(담임 이규영 목사), 충남 예산에 위치한 꿈이 가득한교회(담임 김세광 목사), 인천에 위치한 인천포도원교회(담임 강인용 목사), 경남 거제에 위치한 금포교회(담임 김종훈 목사), 부산에 위치한 충성교회(담임 강동완 목사), 원주에 위치한 행구교회(담임 황성호 목사), 전주에 위치한 서노송교회(담임 김성용 목사), 대구에 위치한 충성교회(담임 최영태 목사)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졌다. 이날 전국 8개의 교회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져 총 2,097명의 성도들이 생명을 나누겠다는 약속에 동참하였다.

문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팀
02-363-2114(내선5)

믿음의 기업 - 이상국 장로(성부식품 대표)

“하나님은 상국이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부족하고 미련한 저를 엄청 사랑하시어 오늘날의 저와 일터를 세우고 계십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일군 성부식품 대표 이상국 장로(팔복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답게 모든 일에 기도가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80세가 넘는 이장로의 삶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삶과 사업장을 일구고 있다.

“하나님은 상국이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 장로의 신앙고백이 배어 있는 한 문장 속에 이 장로가 얼마나 순수한지를 짐작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남을 갖고 있는기를 공감하게 한다.

“제가 김용순 권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를 김 권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교화에 다닐 것을 다짐하면서 결혼 후 40여 년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 권사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강조하는 이 장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면 연단과 시련은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말한다. 이 장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지극히 같이 믿음과 사랑이 탄탄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혼 후 22년여 동안 흑염소 육골죽 유통사업은 직원이 7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번창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했던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하나님께 인심이나 쓰듯 주일만 예배드리는데 이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다. 잘 나갔던 사업장이 부도를 맞게 되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저에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회개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한 사업이 오늘의 강변이사업, 일명 뽕튀기사업이다. 자본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강변이였다.

소재로 몇 부대씩 사가지고 팔고 또 팔고 해서 이윤을 남기고 도매로 확대되어 사업이 번창했다. 공금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자 현재 화성동에 60평 건물을 1천만 원보충금으로 임대하여 뽕튀기 수동기계 12개를 가동하게 된다.



1995년 3월 지금의 성부식품(www.sungbufood.co.kr)이 태동된 것이다. 기업 이름도 하나님 아버지 성부로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주신 것이라고 한다. 1998년 IMF 시절에도 뽕튀기 수동기계 12대로 시작한 성부식품이 2년 만에 80대를 가동시킬 정도로 오히려 번창하게 하였다. 하루 8톤가량의 곡물을 튀겨내는 시스템이다. 현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천 5백여 평의 사업장부지도 이때 주셨다.

그러나 연단이 또 다가왔다. 강변이의 단맛을 내는 것은 사탕인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이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장로는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할 수 없고 고민 끝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다. “국내 최초로 단맛을 내는 설탕코팅기술을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다.”

설탕코팅기술과 기계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대당 1억 원을 상회하는 새 기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결단이였다. 뽕튀기가 입에 붙지 않고 바삭바삭해서 식감도 좋아져서 소요량은 점차로 늘어가게 됐다. 처음에는 단가가 높아 도매상에서 찾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찾으니 도소매상인들의 요청이 늘어났다. 이렇듯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이상국 장로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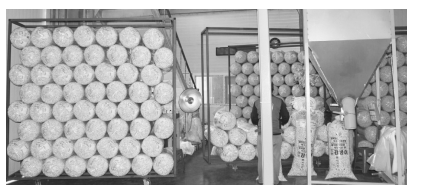
하나님의 축복 속에 2008년 11월 11일 건물 4동을 신축하여 수동에서 18대 자동뽕튀기 기계설비를 완료하고 자동시스템으로 갖추게 된다. 2010년 성부 F&C유통회사를 설립하고 2015년 말 원적외선 특수건조공법도 한국최초로 도입했다.

팔복교회의 선임장로로 30년을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이 장로는 특별히 강조하는 말이 있다. 첫째는 신앙인은 기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 교회와 담임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 장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번창하게 된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할 것을 믿으면서 아낌 받은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자 한다. 강변이와 뽕튀기는 전도용품으로는 더 없이 좋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 부담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 이 장로는 강변이와 뽕튀기가 전도와 섬김의 도구로 더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 이미 이 장로가 섬기는 팔복교회는 전도용품과 지역을 섬기는 일에 좋은 매체로 사용하고 있다. 팔복교회 오윤모 목사와 이상국 장로는 농어촌교회는 물론 도시권 미지리교회들 수시로 방문한다. 물론 강변이와 뽕튀기를 한 차가득 채우고 전도와 섬김을 위한 이들의 발걸음은 가볍다.

비록 현장전도는 못해도 교회에 유익되는 일에 사업장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축복이요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상국 장로. 어린이가 같은 순수한 기도의 사람으로 오 늘도 섬김과 전도나눔의 삶이 선히고 아름답다.

(031-366-3163, 010-5359-4980)



교사 강습회에 와서 변화되는 교사가 됩시다!!!

교사강습회 "Come & Change!"

주제: ‘사랑’ (요 3:16)

- 대상: 교회학교 교육 담당자 및 교사
- 교재: 책자 2,000원, 찬양CD 2,000원, 찬양물동DVD 5,000원
- 특징: ① 여름성경학교 활동프로그램 시연 및 자료 제공
② 새로운 찬양 물동 보급 ③ 중·고등부 특강 및 성경퀴즈 대회

- 일시: 5월 13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수원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전화: 031-233-2922 팩스: 031-223-1793
- 이메일: hello-pastor@hanmail.net
- 입금계좌: 국민은행 670101-01-433175(한실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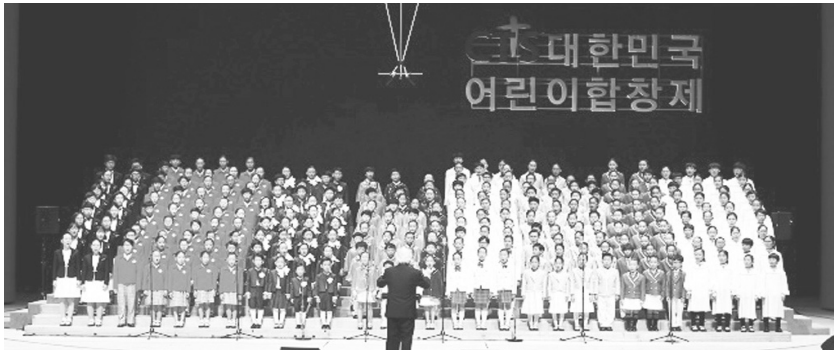
* 교단 소속교회 참석인원을 사전에 알려 주시면 좌석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제7회 CTS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 성료

합창을 통해 성장하는 다음세대의 아름다운 희망의 화음



다음세대를 세우는 미디어전교 CTS7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지난 4월 29일(토)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제7회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제7회를 맞는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는 집체되어가는 교회교회와 소통과 배려가 필요한 한국사회에, 합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CTS의 중요한 문화사역"이라며 "이번 찬양제를 통해 한국교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나의 마음을 품고 연합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고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CTS 창사 22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성대하게 치러진 제7회 CTS 대한민국 어린이합창제는 CTS 서태왕, 김인후 이사운서의 사회로 △하늘중앙교회 '유스콰이어

합창단' △사상성결교회 '마하나인 소년소녀합창단' △CTS제천소년소녀합창단 △목동제일교회 '하이노스 소년소녀합창단' △포항장성교회 '미조이스소년소녀합창단' 등 총 9팀이 참가했고, 하늘중앙교회 '드림엔젤스'와 '국악양상블'休 팀이 특별 출연하여 감동적이고 발랄한 무대를 선보였다.

마지막 순서로, 세계적인 거장 윤학원 감독(CTS 예술단감독 겸 CTS소년소녀합창단장)의 지휘 아래 4백여 명의 참가팀 전원이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세계'를 연합 합창하여 1,500여 명의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CTS소년소녀합창단장 윤학원 장로는 "어울림의 능력을 기르는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를 통해 아이들이 합창의 기쁨을 배우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며 찬양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음악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월드비전, '꽃, 꽃 숨어라' 캠페인 진행

국제구호개발 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 www.worldvision.or.kr)이 4월 28일(금)부터 5월 14일(주)까지 2017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꽃, 꽃 숨어라' 캠페인을 진행했다.

'꽃, 꽃 숨어라' 캠페인은 지구촌 아동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으로, 가로10m, 세로10m 크기의 미로 모양 부스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개발도상국에 사는 어린이들의 하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미로 모양 부스 내에는 '내가 태어난 마을은 어디에 있을까요(대한민국/아프리카)',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할까요(학교/물 길기)' 등 다양한미션이 제공되었다.

또한, 깨끗한 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월드비전 사업 현장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고, 노동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프리카 아동과 한국 아동의 일과를 비교하는 제책물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월드비전 어호선 마케팅부장은 "즐거운 휴일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가족들이 함께 예쁜 꽃도 구경하고 지구촌 아동들을 위한 캠페인에도 동참해주길 기대한다"며 "올해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힘든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체험형 부스를 마련했으니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개척교회를 섬기는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전건축을 앞두고 많은 영혼들을 불러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지난날 목사님과 전도대원들은 서울이며 지방이며 먼 곳까지 여러 가지 전도 훈련과 전도 세미나를 다니며 각종 전도법을 해봤고 부친개, 물티슈, 빵튀기, 황토소금 등을 돌려봤지만 이런 전도법으로는 열매가 적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성도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남아 있는 성도들은 1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목사님과 사모님과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목사님의 가족 SET 전도법이었습니다. 가족의 50일 기도가 끝나고 다음 날인 4월 20일, 박영수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세미나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들도 오셔서 함께 세미나를 듣는데 청년은 저 혼자였습니다. 박영수 목사님은 저한테 "이 교회 청년이나, 전도 잘하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세미나를 들으면서 전도에 대한 열망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세미나 2시간 가량 하고 나서 교회 주변의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간 곳은 대전건강원. 박영수 목사님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자임 절도시라고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시며 바로 머리에 손을 얹고 영접 기도를 시키시는데 "따라 하세요. 사람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

도합니다. 아멘" 가게 주인은 아멘 까지 따라 하고 머리에 손 얹는데도 순종적이지어서 놀랐습니다. 박영수 목사님은 예배 나오라는 약속까지 받으시고 교배(축복)를 붙이고 인증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개인정보도 잘 안 알려주는 시대인데 인적사항이 적힌 수첩까지, 이 모든 게 5분이면 끝났습니다. 박 목사님과 담임목사님과 사모님, 세미나에 참가한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는 시장 12군데 가게를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12군데 중 영접기도를 거부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셨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이 평소에도 기도하던 부속인 3명도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는 결신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 SET 전도법은 속전속결로 기존의 전도법과는 비교가 안 되게 온전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접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은 반응하게 되어 있고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SET 전도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거둘 수 있는 적절한 전도법이었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도법입니다.

비빔신 와중에도 외주신 박영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전도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신나게' 전도할 생각을 하니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대전우리들교회 김윤경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어민들의 보상금 합당하게 배분되어야”

강화어촌계바로세우기 기독교대책위원회

강화군 최북단 서검도라는 작은 섬에서 어촌 주민들에게 부여된 피해보상금이 정당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강화어촌계바로세우기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희 목사, 이하 강화어촌계대책위)가 발족돼 대응하고 있는 상황.

강화어촌계대책위는 최근 서울 종로구 연지동 다사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진실 규명과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서검도는 강화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석모도에 도착한 후 하리 선착장에서 다시 배를 타고 30여 분을 더 이동해야 닿을 수 있는 강화 최북단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이곳은 북한의 연안 염전이 손에 잡힐 듯 내려보이는 군사분계선 내에 자리잡고 있다.

박형희 목사는 "이 사건은 강화의 작은 낙도에 연결된 100만 평 이상의 갯벌에서 생산되는 상황 조개를 채취하는 마을 공동체인 어촌계에 연루된 이권에 대한 비리"라고 입을 폈다.

김대중 정권 때 대북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강화도 북단의 석모도, 향포리와 서검도 그리고 교동도 북단에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발표됐다. 이 계획은 현재 보류되었으나, 강화어촌계대책위는 "비리의 씨앗은 이때부터 심겨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일대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공항고속도로, 골재비축기지 건설을 위한 막대한 공사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한 어업 피해보상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마을 어촌계에는 2000~2001년 단 2년간의 피해에 대해 원금 8억7천만 원과 이자 4억4천만 원을 포함한 보상금 13억여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인 마을 사람들은 고작 1억3천만 원 정도의 보상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1억7천만 원 상당을 서검도 및 갯벌양식과 무관

한 지방도호들이 전탈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조개업에 종사하는 어민들 28명 앞으로 나온 13억여 원과는 별도로 고기잡이배를 소유한 어선 소유자 137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47억여 원에 대해서도 원금 30억만을 나눠줬을 뿐 이자 17억 원은 전혀 배분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서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들이 지구별 수협 관내에서 또는 다른 행정구역이나 경제권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수협계통 조직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어촌계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어촌계마다 정관이 존재하여 자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생산과점상의 협동화와 공동어장의 관리 기능을 하고 있다.

강화어촌계대책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어촌계에 어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편선과 음식업에 종사하는 10여 명이 규합하여 어촌계원으로 등록한 뒤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고, 어민들에게 나온 보상금을 부당하게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박형희 목사를 비롯한 어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자 대검찰청은 인천지검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사건은 '공람종결'로 마무리됐다.

이에 불복한 박 목사는 "피해자 단 한 사람도 조사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인천지검에 사건이 다시 배정됐으나 지난 4월 12일 또다시 공람종결 처리되어 통지됐다.

여기서 공람종결이란, 더 이상 조사할 필요성도 없고 또한 미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조사를 진행시키지 않고 현 상황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이다.

검찰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공람종결'이란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진정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진정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 △특정사건과 관련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 △민사·행정소송에 관한 진정인 경우 공람종결 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해당 검사실에 어떤 이유로 공람종결 처리가 됐는지 문의한 결과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유를 말할 줄 법적인 이유도 없다. 다만 입건조차 안 되어 공람종결 처리했을 뿐"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어촌계장 조모 씨는 "몇 년 전 이야기에만 잘 모른다. 계원을 검찰 수사해서 한 3년 걸려서 혐의 없는 거로 다 끝난 것"이라면서도 "정당하게 배분됐다"고 주장했다.

계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됐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공항공사와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사에 의해 조사한 년도, 실적 등이 반영되어 보상금이 책정된 거다. 똑같이 배분될 수는 없다. 임의로 어떻게 보상금을 정하니"라며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상금을 왜 타냐. 하등 이상 없다"고 말했다.

강화어촌계대책위 박형희 목사는 두 번째 공람종결 상황에 또다시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목사는 "내가 섬기는 하늘소망교회가 위치한 서검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어민들이 고통당하면서도 호소할 곳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며 "잘못된 일이 바로 잡힐 때까지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11가지 국고보조금 불법사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억울한 일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기독교언론 공동취재단-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대표 김옥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류 유입해 비등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20,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대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대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오직 복음의 진리 사수, 목양 일념 성도와 울고 웃은 한 평생

대림벤엘교회 당회장 정부용 목사 성역 40주년



정부용 목사
대림벤엘교회 당회장

한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기 위해 헌신해온 교단 전직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대림벤엘교회 당회장)가 성역 4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18일(화) 오후 6시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축하예배를 드리고 한 걸 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렸다.

성도들과 자녀들은 이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직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며 목양을 향한 일념으로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왔던 어머니이자 성도들의 영적리더인 대림벤엘교회 당회장 정부용 목사에게 오직 한 길을 걸으며 살아온 발자취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대표기도,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염 6:2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경험은 모두 다르지만 사도바울이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정목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감으로 영혼구원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었고 헌신의 결과로 이름



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전했다.

조목사는 또 "정목사는 성역 40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맡겨주신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해 오신 증거이기도 하며, 항상 의와 진실 편에서 사명을 감당해 오신 성역 40년 기념을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성역 40년을 맞아 대림벤엘교회와 정부용 목사를 축복했다.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정부용 목사 자녀들이 정성으로 제정한 만찬을 함께 나누고 뒤 2부 인사 및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변영식 목사의 사회로 열린 2부 순서는 자녀들의 감사인사 후 정부용 목사가 40년간 이어온 성역 40년 기념영상이 방영되어 무당과의 영적전쟁과 마귀와의 영적전쟁 가난과 고통,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던 성도들과 함께하며 마귀와 싸워 이긴 감사와 기쁨의 순간들과 비록 솔한 어려움 속에 고된 시간이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음을 보여 눈가가 축축하게 젖어들기도 했다.

축하공연은 고양시립합창단 남성4중창, 에이



레네선교단 어린이 찬양팀, 박흥배, 김용미 집사의 바이올린 세소폰 연주, 어머니 찬양팀, 청년부 찬양팀, 어린이 합창단, 국악찬양 등의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한 포럼 열려

최근 군대에서 장교와 사병 사이 동성애 문제

지난 4월, 군인들 사이에 동성애를 한 것이 자신했던 이들이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교 17명, 부사관 10명, 병사 5명이 연루되어 육군중앙수사단이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역시 4월에는 인천지방법원의 이 모 판사가 “군형법 제2조의 6”에 대한 위헌제정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기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다시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이다. 이것은 지난 해 7월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것이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일선의 판사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므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도 함께 터져 나온 것이다.

이날 주요 패널로는 김일생 전 법무장관(예비역 중장), 이은수 전 법무실장(예비역 중장, 변호사), 임천영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예비역 대령, 변호사),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전 군 검찰관, 전 민변 소속 변호사), 고영일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변호사) 등이 출연하였다.

주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인권연구소, 바른성문화회위한국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바른세우기학부모연합, 고영제전우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먼저 김일생 전 법무장관은 “군형법 제2조의 6”이 갖는 의미는 ‘일반 형벌에 없는 처벌 규정이지만, (군에서)위계가 엄격한 서열 속에서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인권유린 행위의 개인성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으며, 무장(武裝)을 한 집단 내에서 성폭행은 대형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되기에,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이 법을 폐기할 경우, 군기강의 문제, 전투력 손실, 국난적 상황의 전시 대비를 해야 하는 군이

입게 될 공익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인정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다음으로 이은수 전 법무실장은 “군형법 제2조의 6”의 변화과정을 설명했는데, 이 법의 입법은 1962년 1월 군형법 제정 시부터 존속해 왔으며, 2009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형량이 1년에서 2년으로 높아져, 강화된 측면이 있고, 2013년 더불어민주당 김 모 의원에 의해, 해당 조항 폐지 발의에 의해, 계간(鰲姦-남성 동성애를 의미)이라는 용어가 ‘항문성교’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이은수 변호사는 이 법률의 ‘위헌성 여부’는 대법원 판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되는데,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로 보고 있으며,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의 질서가 지칠했을 위험이 있으므로, 동성 간의 영내에서의 추행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영외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것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천영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우리 헌제가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하여 군대라는 특수성과 추행죄의 보호법익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합헌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는 동성애 병사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군형법 제2조의 6”을 적용하는 것은 ‘군기강 확립과 건전한 내부 생활 보호를 위해, 동성애 병사의 병영 내에서의 성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헌제가 이 법률을 ‘합헌’으로 유지하는 것도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 명령 체계와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에서 일어나

는 동성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합헌결정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지영준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는 것이 사회적 법익이 되며 이를 위하여 ‘합의’가 됐든 안 됐든 처벌되는 것은 당연함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나 ‘도박죄’와 같은 것이 쌍방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것과 같은 이치임을 설명하였다.

또 동성애 운동가들이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다른 것은 다르게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군형법 제2조의 6’에 대한 것은 오히려 강화하여 사회적 법익을 지켜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성애 전문 사이트를 살펴보면, 군 간부와 장병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동성애 파트너를 찾는 글과 사진들이 수백 개씩 올라와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는 동성애자들에게 억압된 장소가 아니라 청정 한타지 를주는 곳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는는 주장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동성애라는 성적 중독에 빠진 군인들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길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법률 전문가, 활동가, 이혼가, 부모 세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군대에서 동성애를 통하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공익적 영역인 군대를 어지럽히는 동성애를 막자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사 설

제66차 성총회에 바란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6차 정기총회가 15일 (월)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향후 1년간 총회를 이끌어갈 새 총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는 목사(고시)를 거친 목사 후보자들을 목사로 세우고 해외선교사 파송식도 거행될예정이다.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고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동성애 용납, 막대한 자본으로 중무장한 이슬람의 집요한 침투행위 등 이단 사설들이 기세를 더해 가고 있는 시대에 참된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성장 동력의 퇴조는 여전하지만, 급속한 시대 변화로 신앙과 도덕적인 가치에 대한 급기 기준도 후퇴하고 있어 교회의 경각심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과제는 교회 지도층의 영적 각성이 가장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회의다음세대들이

끌어갈 청소년 세대의 감소 추세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도 매우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한국개신교는 실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처해있다.

종교개혁 5백주년이 되는 해다. 각 교단들은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보고로 온갖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교단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종교개혁의 불꽃만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활할 때 우며 달려가는 성령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임을 자부하고 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고 하셨다. 제66차 성총회는 심기일전하여 일대 각성과새 출발로 한국교회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결단과 각오로 모두들 임해야 하겠다. 우리는 자부심을 새롭게 다지는 성총회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하겠다.

대선 이후 한국교회의 사명

일대 사회 혼란 속에서 대선이 끝났다. 그러나 우리 국민 앞에는 극심한 혼란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남게 되었다.

첫째로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다시 한번 국도로 고조된 바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의 극한적인 분열과 이념적 대립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둘째로 삼각파도처럼 휩쓸어 오고있는 미·중·일·러 등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 정책 요동이다. 어쩌면 우리의 운명이 또다시 우리를 제외한강대국의 흥성(興盛)으로 전락하여 영구 분단의 비극으로 곤두박질할지도 모른다는 안보전문가들의 우려가 고개를 들고있는 실정이다.

셋째로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과 극복이 불가능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외교안보나 경제회복의 과제는 우선적으로정부와 정치력의 차원에서 해결해 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신적, 이념적 대립·분열상은 결코 정부나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국민 자생적 노력이지 아니고는 해결 불가능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성경 중심적 교회들은 대통령 탄핵과 선거라는 시국의 일대 혼돈 속에서 태극기를 들고 울부짖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정의와 공의를 외쳤다. 우리 한국의 정통교회 세력은 이 나라의 정권이 확고한 국토방위와 안보관외부철한 지도자의 선출이었다.

실로 1천만 한국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오늘날 이 나라의 국민적 이념 및 세대, 지역 간 갈등과 분열상을 치유해 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이념대립과 연명대별 대립과 분열상을 극복하는 일이다. 모세는 왜 광야 40년만에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다시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2050세대는 60세 이후의 원로·호국연대의 반 사회주의, 반공산주의 피어린 투쟁사를 알지 못한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 신생세대가 사나산 울법을 망각하게 된 일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메시지 선포와 교회 교육과 사회참여에 총력대진하여야 한다.

“각막기증 활성화 캠페인 ‘아이 프로미스 유’

개그맨 신동엽 외 유명 스타 89명 참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운동본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3개월 동안 장기기증 인식개선과 각막기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아이 프로미스 유’(EYE PROMISE YOU)를 진행해 89명의 유명인들이 따뜻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각막기증서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배우 최지우, 공형진, 지진희, 김영철, 이일화, 이세영, 개그맨 신동엽, 지석진 가수 하하, 윤도현, 다이나믹 듀오, 김하철, 공민지 등 유명인 89명이 각막기증서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캠페인에 참여했고 특히 배우 이

덕화, 이지현 부녀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개그맨 신동엽 씨는 2009년 운동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서약을 한 후 장기기증 문화 조성을 위한 라디오 광고에 목소리 재능기부를 하였다. 이번엔 각막기증을 독려하는 ‘아이 프로미스 유’ 캠페인에 참여하여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힘을 주는 따뜻한 행보를 8년 동안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배우 이덕화, 이지현 부녀는 최초로 부녀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 보는 이들을 훈훈하게 했다. 배우 이덕화 씨는 ‘비가 오고 안개가 드리운 날 조용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치는 바다의 모습과 자연의 소리는 저에게 위안과 휴식을 주었습니다. 훗날 누군가에게 이 위안과 휴식이 전

해지길 바라며..’는 글과 함께 바다 사진을 게재하여 각막기증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듯 딸인 이지현 씨는 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을 비추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한편 운동본부가 제시한 장기기증 서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349 모바일 및 홈페이지 통한 장기기증 등록자가 2,780명, 올해 2,349명은 3,372명으로 전년 대비 등록자가 21% 가량 증가하였다.

‘아이 프로미스 유’ 캠페인의 영향으로 시작 후 온라인을 통한 장기기증 서약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오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하나님의 계시(아포칼립스)

주님께서 70인을 세워 전도대로 파송했을 때, 전도대들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이 항복하고 병이 고쳐지고, 마귀가 떠났습니다’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니, 마귀가 떠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기쁨보다는 사역의 결과로서의 일들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본질적 기쁨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이 구원입니다. 주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포칼립스(계시)가 열려,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버지가 누구며, 아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슬기시키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 타내어 주심이 감사하나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거듭난 제자들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았음에 복 받은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들이 누구인가를 계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기노스코).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율법의 관원이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였지만 감춰져있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지만 의미는 모른 채 행위만 강조하였습니다. 마치 나무꾼이 숲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이,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하면 그 안에서 헤매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고 헤매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들은 첫째,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야 하며,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비로소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자들입니다.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개강 : 2017년 03월 02일 목요일)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군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 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6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66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 | |
|---------------------------|---|
| 1. 총회일자 : 2017년 5월 15일(월) | 4. 사무총회 : 5월 15일(월) 오후 2시 30분 |
| 2. 등 록 : 5월 15일(월) 오전 11시 |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
| 3. 개회예배 : 5월 15일(월) 오후 1시 |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 (교역자, 장로) |

2017년 4월 3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조 남 영

5월 14일(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킵시다!!!

- 총 회 주 일 _ 2017년 5월 14일
- 대 상 _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산하 지방회 회원교회
- 총회주일안내 _ 전국 각 교회에서 홍보 현수막 및 홍보전단, 주보 등을 활용해 교단의 성령충만한 사역 운동을 알리고 지역사회 복음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활용토록 함.
- 헌 금 구 분 _ 특별헌금을 교회 형편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8033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 사 조 남 영
총 무 목 사 최 형 택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http://www.aogk.org>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email:aogk@aogk.org

제66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공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6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를 교단 헌법 제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장 후보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부총회장 후보



임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총무 후보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서기 후보



차홍식 목사
아산순복음교회

재무 후보



탁정신 목사
온선교회

회계 후보



윤병하 목사
한우리교회

2017년 4월 2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위원장 목사 김인찬
서 기 목 사 정의섭